

# 지속가능한 미술관 운영 매뉴얼

# Manual for the Sustainable Museum

**1단계 :**  
필(必)환경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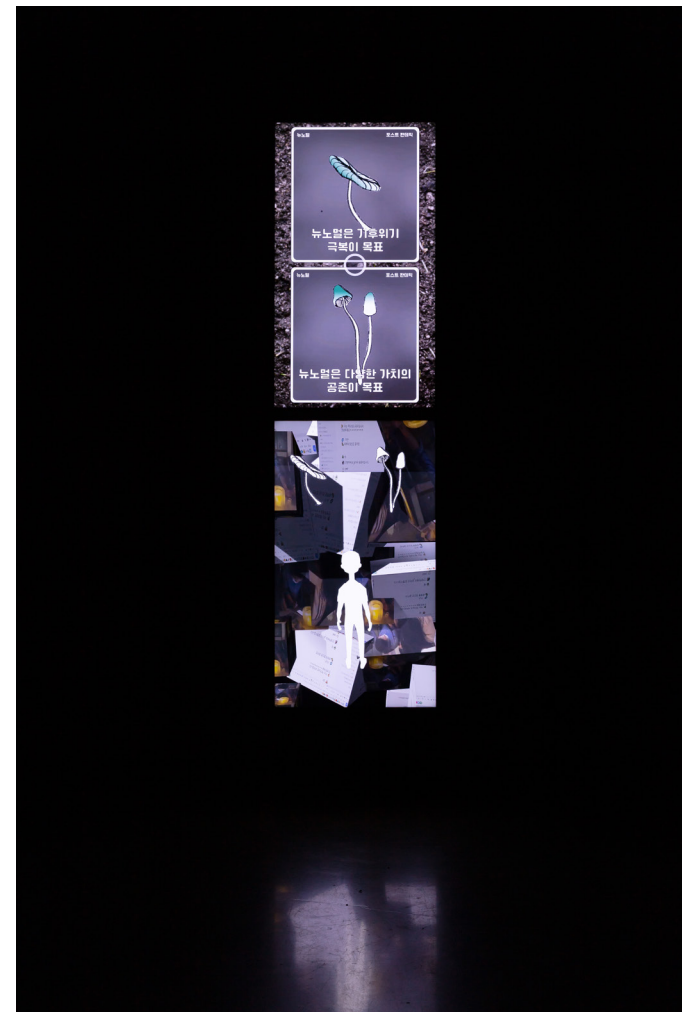
**Step 1:**  
To be Eco-Conscious  
Museum

**아르코미술관은 1단계  
‘필환경 실천 매뉴얼’을  
시작으로, 평등, 인권,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고,  
장벽 없는(barrier-free)  
미술관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미술관’ 운영  
지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uilding upon the  
concepts established  
in the Step 1: To be Eco-  
Conscious Museum,  
ARKO Art Center will  
expand the ‘Manual  
for the Sustainable  
Museum’ to implement  
barrier-free museum  
practices that pursue  
equity, human rights  
and cultural diversity.**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전시 작품

Exhibition works related to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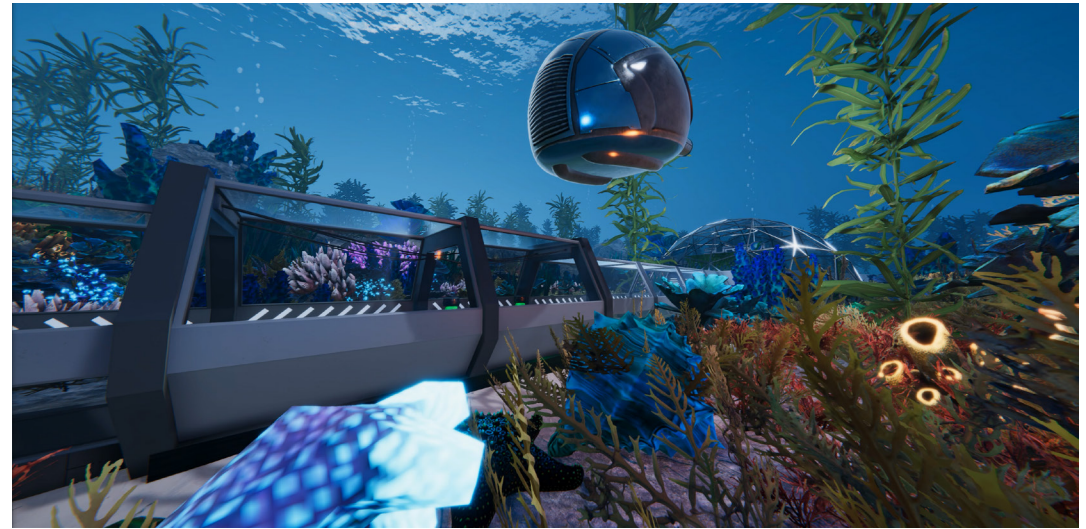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전시 작품

Exhibition works related to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



5



4

김아영 작가 제공



6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전시 작품

Exhibition works related to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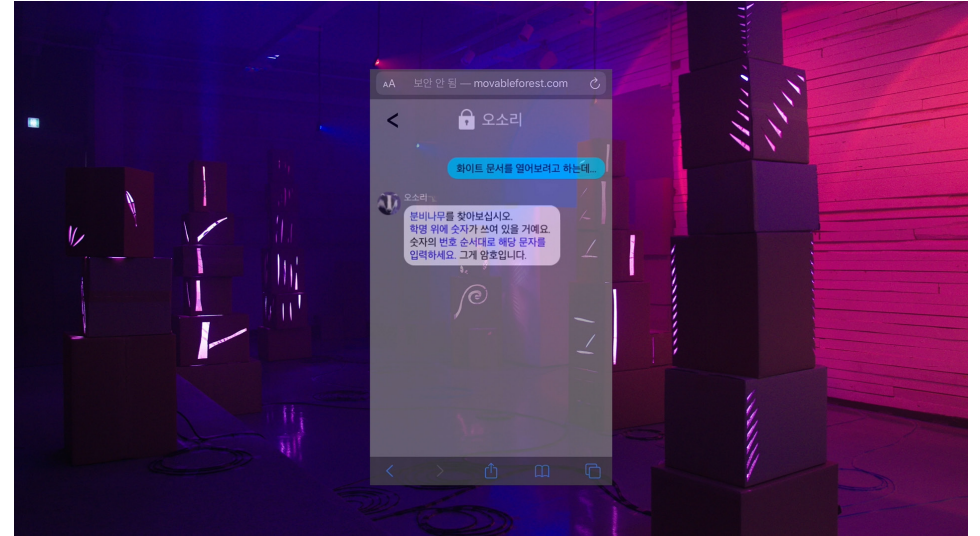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전시 작품

Exhibition works related to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



10



11



12



13

##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전시 작품

홍이현숙 개인전 «헝, 추꾸»  
2021.1.21 - 3.28

**1 홍이현숙, <석광사 근방>, 2020,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5분 45초**  
작가는 인간과 함께 삶의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는 이들과 소통을 시도한다. 조심스레 눈높이를 맞추고, 움직임을 따라하거나 그림자로 그들의 신체를 쓰다듬고, 등에 올라타 함께 날아오르는 상상을 하며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 쌓은 시간이 사라질 공동의 터전을 내려다본다.

정재철 개인전 «정재철: 시림과 평화»  
2021.7.1 - 8.29

**2 정재철, <블루오션 프로젝트>, 2013-2020 <블루오션 프로젝트>**는 2013년부터 신안군, 제주도, 영흥도, 독도, 새만금, 백령도 등 동서남북 해안가의 답사를 실행한 현장 리서치 프로젝트이다. 작가는 해안가 주변을 기록하고, 쓰레기를 수집했으며, 주민들의 인터뷰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마을, 커뮤니티 기반으로 미술언어로 가능한 실천을 고민하면서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이를 통한 점점을 일으키고자 했다.

2021 옹북합 페스티벌 «황단하는 물집의 세계»  
2021.9.1 - 12.17

**3 뉴보통, <뉴보통 게임 플레이 필름>, 2021, 2채널 영상, 가변크기**  
<뉴보통 프로젝트>는 2020년의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출발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구축해 본 과정 중심 프로젝트다. 두 달여 간의 온/오프라인 워크숍과 즉흥 게임을 기반으로 지구적 생태 조건 속에 다양한 정체성과 가치가 존중받는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게임을 제작했다. 기후 위기 시대, 우리는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고루 공존하는 미래에 도착할 수 있을까?

**4 김아영, <수리술: POVCR>, 2021, 인터랙티브 VR, 약 15분**  
본 프로젝트는 팬데믹 이후 가까운 미래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사변서사로, 동시대의 조건들을 반영하거나 왜곡함으로써 도리어 현실에 접근 가능한 '가능세계'의 구축을 시도한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의 가속화 후,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가 주요 에너지원이 된 사회, 거대 해조류(macroalgae) 다시마를 발효해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해조류 연료가 세계의 주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된 어느 사회를 상상한다.

**5 밥랩+예술과재난+인포보스, <미스터 코와의 조우 — 프로토타입>, 2021, 혼합매체, 가변크기**  
인간의 생존을 위한 매개체로 자연을 인식해온 인간은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자연에 접근하였다. 그 결과 인간은 끊임 없이 생존의 범위 안에서 자연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파괴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본 프로젝트에서는 보다 자연의 입장과 관점에서 인간과의 공존에 대해 탐색해본다. 즉 자연이 인간과 공존하기 위해 인간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을 선보인다.

## Exhibition works related to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

Hong Lee, Hyun-Sook «Swoosh, Tsu-pui»  
2021.1.21 - 3.28

**1 Hong Lee, Hyun-Sook, <In the Neighborhood of Seokgwangsa>, 2020,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15min 45sec**  
The artist makes an effort to communicate with cats whose lives are threatened by humans and the changes in their surroundings while they share their living space with humans. She carefully observes them, mimics their movements, and imagines to ride on their back and soar up together. She looks down on the shared space where the time that human and non-human animals have accumulated together will soon be absent.

Jeoung Jae Choul «For Love And Peace»  
2021.7.1 - 8.29

**2 Jeoung Jae Choul, <Blue Ocean Project>, 2013 - 2020**  
*The Blue Ocean Project* is a site research project encompassing visits made to Sinan-gun, Jeju-do, Youngheung-do, Dok-do, and other various beaches in South Korea. He collected garbage, interviewed local residents, and ran an educational program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Based on villages and communities, he tried to find a possible practice in visual art language, being aware of and creating a project about pollution.

2021 ARKO Art & Tech Festival «Nothing Makes Itself»  
2021.9.1 - 12.17

**3 NewBotong, <NewBotong Game Gameplay Film>, 2021, 2 channel video, dimension variable**  
*NewBotong Project* is a process-oriented work that begins from the 2020 Covid-19 pandemic and looks into the future where everything can coexist. Based on the online and offline workshops conducted for about two months, this game was created to draw up a future scenario where diverse identities and values are appreciated in the earth's ecological conditions and estimate such a world's sustainability. Thus, the game appears to be a process of developing a world where the values each player pursues are respected.

**4 Ayoung Kim, <Surisol: POVCR>, 2021, interactive VR, approx. 15min**  
This project is a speculative narrative that simulates the situation of the near future—the post-pandemic era. It attempts to construct a "possible world," which is accessible in reality by reflecting or distorting the present conditions. The project imagines a society where sustainable biofuel—marine algae fuel produced by fermenting macro-algae kelp—has become the primary energy source after human's fossil fuel usage drove the world to climate change and accelerated resource depletion.

**5 V.A.B Lab + art and disaster + Infoboss, <Searching for Mr. CO. — prototype>, 2021,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Until now, human beings have perceived nature as a mediator for their survival, and have treated nature as a requirement for their existence. Such a tendency seems to lead to a vicious cycle where humans ceaselessly intervene and harm nature within their survival range. Thus, this project intends to explore the coexistence of nature and human beings from nature's stance. It presents the process where nature raises issues to humans to live in harmony.

##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전시 작품

2021 옹북함 페스티벌 «황먼하는 물질의 세계»  
2021.9.1 - 12.17

- 6 수지 이바라 & 미셸 콥스, <물의 리듬: 기후변화에 귀 기울이기>, 2021, 사운드 설치, 가변크기**  
얼음과 물이 전하는 기후변화의 이야기로, 우리가 자초한 기후와 풍경의 변화에 얽힌 인간의 모습을 담은 어쿠스틱 스토리이기도 하다. 작가들은 그린란드 판빙, 인도 히말라야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빙권 지역을 찾아 산 정상에서 바다까지 빙하의 변화를 소리 지도로 기록했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생활인 담수에 미치는 영향을 소리로 기록하고, 점점 더 불안정해져가는 지구 생태계에 대해 물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 7 스튜디오 싱킹핸드, <마이코제네시스>, <비타-네크로-비타>, <페릴 페티시> 전경, 2021**  
우리는 인간을 자연에서 분리하고 자연보다 우월한 위치에 두는 힘의 관계와 체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설정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 8 시셀 마리 톤, <감시종 되기>, 2020-2021, 단채널 영상, 17분**  
바다의 플라스틱 공해는 해양 생물들이 겪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공해에 노출된 해양 생물들은 마치 감시병처럼 플라스틱의 환경 영향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시작된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분자는 인간의 '내적 바다'라 할 수 있는 혈관에 침투했을 수도 있다고 한다. <감시종 되기>는 환경오염을 입증하는 감시종의 역할에 대해 탐색하고 고민하는 가상의 미래 이야기이다.
- 9 우르술라 비에만, <어쿠스틱 오션>, 2018, 다채널 비디오 설치, 18분**  
<어쿠스틱 오션>은 과학적, 개인적, 현상학적 내러티브를 통합하여 노르웨이 북부 로포텐 제도(Lofoten Islands) 해양 생태계의 중간 관계 및 해저 세계를 탐구한다. 가수 겸 환경운동가 소피아 얀노크(Sofia Jannok)가 연기하는 해저탐험가는 본인이 속한 원주민 사미족 커뮤니티,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문화적 주권이 달린 순록에게 닥친 기후변화의 영향을 말한다.

- 10 한윤정, <더 퓨처 이즈 레드>, 2021,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 및 3D프린팅 조각, 23×18×20 cm**  
미국 캘리포니아는 현재 통계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면적과 인명 및 시설피해를 갱신 중이며, 대한민국은 최근 10년 동안 평균 47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여 산불 예방과 관리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더 퓨처 이즈 레드>는 데이터 아트와 시청각적 경험을 통해 관람객에게 기후변화의 현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 11 김보람, <움직이는 숲 — 불타는 집>, 2021, 열에너지 전환 장치 및 전력 측정기, 사운드 설치**  
나무를 살려야 한다. 숲이 언제 불타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류는 자신을 포함하여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멸종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나무가 절멸하면 인간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관객은 절멸 위기에 놓인 숲을 방문하게 된다.
- 12 콜렉티브 씽글, <배팅 로얄: 더 나은 미래 편>, 2021, 퍼포먼스**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예측해보세요: 대비해보세요: 당신과 이웃을 위한 기술을 선택해보세요.” 관객들은 국가 기관의 R&D 사업 담당자가 되어 기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 입찰에 참여한다.
- 13 제로의 예술, <비거니즘 전시 매뉴얼>, 2020-2021**  
<비거니즘 전시 매뉴얼>은 하나의 전시를 열고 닫기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온 전시의 프로세스를 돌아보며, 전시를 만들고 해체하는 전 과정에서 마주하는 여러 결정의 순간에 보다 환경에 덜 빛지는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매뉴얼이다.

## Exhibition works related to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

2021 ARKO Art & Tech Festival «Nothing Makes Itself»  
2021.9.1 - 12.17

- 6 Susie Ibarra & Michele Koppes, <Water Rhythms: Listening to Climate Change>, 2021, sound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Water Rhythms* is the story of climate change as told by the ice and water and also the acoustic story of our entanglements with a changing climate and changing landscapes of our own making. Through *Water Rhythms*, we hope to invite listeners into more embodied ways of understanding how we are inextricably connected to the Earth's freshwater, by bringing art, music and science together, in dialogue.
- 7 Studio ThinkingHand, <View Image of Mycogenesis, Vita-Necro-Vita, Feral Fetish>, 2021**  
We find ourselves in times where power structures and hierarchies which place Humans above and separated from Nature no longer suffice, opening up to possibilities of re-negotiating our relationship to Nature.
- 8 Sissel Marie Tonn, <Becoming a Sentinel Species>, 2020-2021, single channel video, 17min**  
Plastic pollution in the oceans has become a part of marine species' daily experience. These species act as sentinels, informing scientists who seek to understand the impacts of plastic in the field. Nascent research indicates that tiny microplastic particles may also be entering the human "inner ocean" — the bloodstream. *Becoming a Sentinel Species* is a fictional story imagining a future in which humans explore and reflect on the role of the sentinel as an eye witness to environmental pollution.
- 9 Ursula Biemann, <Acoustic Ocean>, 2018, multi-channel video installation, 18 min**  
*Acoustic Ocean* combines scientific, personal, and phenomenological narrative in an exploration of oceanic depths and interspecies relations above and below the waterline of the Lofoten Islands in Northern Norway. The narrative takes on a personal dimension when the aquanaut, performed by singer and environmental activist Sofia Jannok, recounts the uneven effects of a shifting climate on the indigenous Sami community of which she is part, and the reindeer on which their economic and cultural sovereignty rely.

- 10 Yoon Chung Han, <The Future Is Red>, 2021, interactive data visualization and 3D printing sculptures, 23×18×20 cm**  
California in The United States is currently setting a new record in the history of wildfire statistics with the most extensive acreage, human life, and facility damage. The Republic of Korea has had an average of 474 wildfires in the past ten years. Due to climate change, there have been "super fires" worldwide, making wildfire prevention and management an international issue. *The Future Is Red* presents data art with an audio-visual experience to reveal the reality of climate change to audiences.
- 11 Borahm Kim, <A Movable Forest — House on Fire>, 2021, electric power, energy conversion devices, power consumption monitor, light-soundweb installation**  
We need to save the trees since they are in a situation where they can be burned down at any time. Humans are currently putting all lives on Earth, including themselves, into an extinction crisis. When there are no more trees, will humans be able to survive? Audiences will visit a forest that is on the verge of destruction.
- 12 Collective Doingle Around, <Betting Royal : for your better future>, 2021, performance**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Predict: Be prepared: Choose technology for you and your neighbors." Audiences participate in technology bids to prepare for climate disasters as representatives of national R&D projects.
- 13 Zero Makes Zero, <Veganism Exhibition Manual>**  
*Veganism Exhibition Manual* looks back on the overall process of making an exhibition from opening to closing, which has been taken for granted. It is a manual to provide options less indebted to the environment at the numerous decision-making moments from building to dismantling an exhibition.

## 전시 운영의 친환경 실천



자원 재순환 / 소품 기부

Resource Recirculation / Material Donation

2022년 주제기획전 «일시적 개입»에서 사용된 총 11종, 26개의 목재 테이블, 카펫, 선반, 좌대, 휴 등의 물품과 기물을 관련 단체(피스오브피스, 어디가든)를 통해 자원이 재순환되도록 했다. 전시를 위해 제작한 기물의 90%가 폐기되지 않고 수거되었다.



In a collaboration effort with a partner organization, ARKO succeeded to recirculate a set of 26 articles comprising 11 types of materials and supplies used for *Local in the Making*, a thematic exhibition in 2022. 90% of materials used for artworks in the exhibit has been recovered, not discarded.

## Eco-Conscious Practice of Exhibition Operation



1



2

작품 국내 프로덕션: 해외 작품의 국내 프로덕션으로 운송에 따른 탄소 발생의 절감을 실천해왔다.

Domestic Production of Artworks : ARKO Art Center is employing the practice to producing artworks of overseas artists locally in Korea to reduce the carbon footprint associated with transportation.

1 우 말리 × 밤부 커튼 스튜디오,  
《환경으로서의 예술: 자두나무 개울에서의 문화 행동》,  
2013, ©타이페이 현대미술관  
이 프로젝트는 '물을 통한 손상된 땅의 개선'이라는  
창의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1 Wu Mali × Bamboo Curtain Studio,  
*Art as Environment: A Cultural Action at the Plum Tree Creek, 2013*, © MOCA Taipei  
*Art as Environment: A Cultural Action at the Plum Tree Creek* proposes the imaginative vision of "mending the broken land with water."

2 시셀 마리톤, 《감시종 되기》, 2020 - 2021  
글래스 오브제 국내 프로덕션: 이태훈 (시셀 마리 톤과  
가이르 누스타드의 아이디어와 매뉴얼을 기반으로 진행)

2 Sissel Marie Tonn,  
*Becoming a Sentinel Species, 2020-2021*  
Glass object production in Seoul by Taehoon Lee (followed  
by the direction from Sissel Marie Tonn and Geir Nustad)

# 지속가능한 미술관을 위한 실천, 첫 단계: 친환경

아르코미술관은 2020년도 이후 “미술관 접근성 및 사회적 역할 확대”(+)，“혐오·차별 없는 포용적 환경 조성 및 탄소발자국 줄이기(-)”，“학제간 협업을 통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미술 담론 생성(x)”，“다양한 예술 주제 간의 지식과 자원의 공유와 소통(÷)”을 4대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전시 및 공공 프로그램 뿐 아니라 미술관 운영 전반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 중 지속가능한 미술관을 위한 실천에 해당하는 ‘친환경’, ‘접근성’, ‘포용성’ 강화를 위한 선연적 의지와 구체적 방법을 지난 한해 동안 논의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매뉴얼에 담았다.

아르코미술관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는 미술관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수차례 워크숍을 통해 당대의 첨예한 사회적 의제를 전시 주제로 발굴하여 담론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실천을 통해 제도기관의 변화로 연결시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첨예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기후변화, 생태, 환경 및 이등, 지역, 공동체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 연결을 가정한 <<횡단하는 물질의 세계>>, 생태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홍이현숙: 횡, 추-푸>>, <<정재철: 사랑과 평화>> 등의 전시가 그 결과물이다.

특히, 인간과 사회와 환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새롭게 감각하고 재인식하게 만드는 예술 작품이 관람이라는 일회성 경험으로만 소비되지 않기 위해, 전시 폐기를 줄이기 등 내부적인 시스템 개선을 함께 진행했다. 우선, 국제박물관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가 발표한 『미술관 현장에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관한 툴킷』(Toolkit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he Museum Practice)을 기본 골자로 삼고,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횡단하는 물질의 세계>>에 참여한 바 있는 제로의 예술이 발간한 『비거니즘 전시 매뉴얼』을 참고하여 실천 가능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실천에 옮겼다. 그 결과, 2022년 총 인쇄물을 전년대비 60% 이상 줄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공간개선에 있어서도 절수 수전, LED 조명 등 설비 교체 등 탄소저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뮤지엄 이노베이션』(Museum Innovation)의 저자 하이탐 에이드(Haitham Eid)는 뮤지엄 이노베이션을 “사회적 문제에 능동적 대응과 적극적 개입을 통해 사회적 유의미성과 지속 가능성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코미술관의 ‘지속가능한 미술관 실천 매뉴얼’은 바로 이러한 뮤지엄 이노베이션의 문제 의식 및 실천 전략과 맞닿아 있다. 아르코미술관의 ‘지속가능한 미술관 매뉴얼’이 미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통해 얻은 새로운 질문과 발견을 다시 누군가에게로 알리는 선순환의 고리가 되기 바란다.

임근혜  
아르코미술관장

# Practice for Sustainable Museum, The First Step: Being Eco-Conscious

In the 2020s, ARKO Art center established the 4 pillars of “adding the accessibility to art center and expand its social roles” (+), “subtracting the hate and discrimination by creating inclusive environments and reducing carbon footprint by eco-friendly practices” (-), “multiplying the art center discourse in the post-pandemic era through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s” (x) and “dividing the knowledge and resources across several artistic entities through communication and sharing” (÷) in art center practices, and implementing it as a fundamental guiding principle of operating the art center in general, not only in exhibits and public programs. As the one pillar of these guiding principles, we discussed our declaration and measures to effectuate such to improve ‘eco-friendly practices,’ ‘accessibility,’ and ‘inclusivity,’ for practicing as a sustainable art center in the past year. Through the consultation of expert panels, those declarations and implementation policies were included in the manual.

ARKO Art Center developed discourse by discovering controversial social agendas at the time as topics for exhibits by conducting several workshops discussing the direction of the Art Center responding to drastically changing social environments. Subsequently, the discourse has formed a consensus that such agendas need to lead the changes in social and policy institutions through various implementation measures. In the process, climate change, ecology, environment and mobility, regions and communities become the focus of the discussions as they become key social issues throughout the pandemic. Key results of such efforts include exhibits like <<Nothing Makes Itself>> that assumed interconnectivity between the humanity and environment, <<Swoosh, Tsu-pu>> that

focused on ecological perspectives and <<Jeoung Jae Choul: For Love and Peace>>.

In addition, we have pursued internal system reforms, such as reducing wastes after exhibits, to avoid the artworks being consumed as ‘one-off’ experience of seeing them while they intend to sense and acknowledge new perspective on the connection among people, society and environment. First, taking the *Toolkit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he Museum Practice*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as a basic framework, ARKO Art Center established an actionable manual based on the technical details of *Veganism Exhibition Manual*, by *Zero Makes Zero*, the organization that participated in “Nothing Makes Itself.”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manual, the Art Center could reduce more than 60% of the print-outs. Furthermore, ARKO Art Center is prioritizing carbon reduction in the renovation of the space, such as replacing facilities with environmentally friendly fixtures including water saving faucets and LED lights.

Haithm Eid, the author of *Museum Innovation* said that the museum innovation is “acquiring social significance and sustainability through active response and intervention to social issues.” ‘Manual for the Sustainable Museum’ aligns with this critical stance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taken by Museum Innovation. ARKO Art Center hopes that the ‘Manual for the Sustainable Museum’ initiates a virtuous cycle to foster discourse with artists in the field, and disseminate the new questions and discoveries through such debates.

Jade Keunhye Lim  
Director General of Arko Art Center

**전시 기간을 3개월 2주  
이상 운영한다.**

**The duration of exhibit  
should be at least  
3 months and 2 weeks.**

— 전시를 장기간 운영해 전시 설치/철수의 빈도를 줄인다.

— Operate a single exhibition longer to lower the frequency of installing and uninstalling exhibit materials.

**전시 기획 시 공간 연출에  
사용되는 자재의 양을  
최소화하여 설계한다.**

**When planning an  
exhibit, design by  
minimizing the amount  
of materials to create  
displays.**

**— 가벽과 자재 설치를 최소화한다.**

**— Install minimal amount of temporary walls  
and other materials.**

**전시 조성시 이전 전시의  
진열장, 가벽 등의 가구 및  
집기를 재사용 하거나  
보양재로 재활용한다.**

**When an exhibit site  
is organized, reuse  
furniture and supplies  
like showcases or  
temporary exhibition  
walls, or recycle them  
as supplementary  
materials.**

- 공간 계획을 공유해 재사용 가능한 가벽은 철거하지 않는다.
- 관람 의자, 가구 등 집기를 재사용한다.

- Share the space planning not to tear down temporary walls that can be re-used.
- Reuse furnishings such as viewing chairs and showcases.

**해외 작가 작품의 경우  
작가나 외부 큐레이터의  
현장 방문 없이 가능한 한  
원격으로 설치한다.**

**In case of international  
exhibits, whenever  
possible, perform  
installation remotely  
instead of hosting  
overseas artists and  
external curators.**

— 작품 제작 매뉴얼을 전달 받아, 국내에서 매뉴얼에 따라 작품을 제작 및 전시한다.

— Receive the installation instruction for the artwork, then assemble and display the artwork locally based on the instruction.

**운송 및 이동에 드는  
탄소 발자국을 최대한  
절감한다.**

**Minimize the carbon  
footprint for moving  
and transportation.**

— 가능한 한 인근 지역의 협력사 및 창작자와 협력한다.

— Collaborate with an affiliate or an artist from nearby region as possible.

## 시트지 사용을 축소한다.

## Reduce the use of adhesive sheet.

- 캘리그래피/손글씨 또는 설명보드를 만들어 시트지 사용을 대체한다.
- 오디오 가이드를 제공한다.

- Replace the adhesive sheet with calligraphy/handwritten description boards or other forms of signs.
- Provide audio guide.

**각종 미술관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시 일회용품  
사용을 절감한다.**

**Reduce the use of  
disposable materials  
in operating several  
art center events or  
programs.**

— 최대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분리수거 및 재활용 가능한 용품을 사용한다.

— Use multi-use containers whenever possible.  
If the use of disposable materials is necessary,  
be sure to use recyclable products.

**전시 폐기물이나  
폐자원을 분해, 분류하고  
관련 단체/기관에  
기증한다.**

**Disassemble and  
sort the wastes from  
exhibits and donate to  
relevant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 목재 재활용 단체, 금속 자투리 자재 수급 단체 등  
자재 종류별로 협의 가능한 Pool을 구축한다.

— Establish a pool of negotiable organizations for  
each type of materials, such as organizations  
for wood recycling, organizations for metallic  
materials.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는  
워크숍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Deliver workshops  
and educational  
programs that raise  
environmental  
awareness.**

- 전시별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어린이/성인 등 대상 별로 정례적인 공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Plan related programs for each exhibit.
- Provide regular public programs designed for specific groups such as children or adult audiences.

**공공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필(必)환경 미션을  
실현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Cooperate with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s  
to realize the eco-  
conscious mission  
and raise awareness in  
environment.**

- 전시 공간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자원을 공유하거나 상호 재사용 한다.
- 친환경 인식을 공유하는 박물관/미술관과 탄소 절감 및 환경 의식을 이야기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한다.

- Share or reuse resources with other exhibition halls or organizations.
- Hold roundtable discussions on carbon reduction and environmental awareness with museums and art centers that share the vision.

**리플릿 수거를 통해  
재활용하고 리플릿 수량을  
축소한다.**

**Collect used leaflets  
to recycle and reduce  
the number of prints.**

- 가급적 친환경 용지 및 친환경 잉크를 사용한다.
- 관람 후 가져가지 않는 리플릿을 수거해 소독 후 활용한다.

- Use ecofriendly paper and ink wherever possible.
- Sanitize and re-use the leaflets recovered after a visitation.

**초대장, 포스터 등의  
홍보 인쇄물을 줄이고,  
웹으로 배포한다.**

**Reduce the  
promotional printouts  
such as posters and  
invitation letters.  
Distribute them  
through the web.**

- 전시 개막 홍보 레터 및 초대장 등을 이메일로 발송한다.
- 전시 포스터는 미술관 전시 아카이빙용으로 최소 수량만 인쇄한다.

- Send e-mails to deliver invitation letters and promotional letters for events.
- Letters and posters should only be produced in minimal quantity for archiving.

**도록 등 출판물을  
제작할 때 가능한 한  
온라인(웹도록 등)으로  
대체하고 인쇄 부수를  
줄인다.**

- 웹 도록과 실물 도록을 병행하여 출판하되, 실물 도록은 최소 수량만 인쇄한다.

**When producing  
publication such as  
exhibition catalogs,  
replace them with  
online (web catalogs,  
etc.) and reduce the  
number of printed  
copies.**

- Publish exhibition catalogs in both hard copy and web-based, but print the hard copy version in minimal quantity.

# 현수막 제작을 축소한다.

# Reduce the production of banners.

- 디지털 미디어로 현수막을 대체하는 것을 검토한다.
-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타이벡, 천 등)으로 제작한다.
- 현수막 철거 후 가급적 에코백 등으로 재활용한다.

- Review the possibility to replace banners with digital media.
- Use eco-friendly materials (tyvek, textile) in producing a banner.
- After retiring the banner, recycle them as eco bags wherever possible.

**LED 조명을 사용한다.**

**Use LED lighting.**

1

1

— 형광등을 LED로 교체한다.

— Replace fluorescent lights with LED.

# 전시 상영 장비의 에너지 소비율을 절감한다.

# Reduce the energy usage rate for exhibit's presentation equipment.

- 고효율 장비를 사용한다.
- 타이머를 사용해 ON/OFF 자동화한다.

- Use high-efficiency equipment.
- Automate ON/OFF using the timers.

**별도 가벽 설치 없이도  
스크리닝이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벽을 보수한다.**

**Continuously maintain  
the wall to enable  
screening without  
installing separate  
temporary walls.**

— 2년 주기로 벽 보수를 시행한다.

— Perform wall maintenance in the biennial.

# 공공 화장실 등에서 수자원 사용을 절약한다.

— 수전에 감지식 센서 또는 절수 장치를 설치한다.

# Save the use of water resources in public restrooms, etc.

— Install detection sensors or water-saving devices  
to water taps.

**보관 중인 물품 목록을 작성하고, 각 물품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공유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Compile the list of materials currently in storage, and manage them efficiently by sharing whether each item can be recycled.**

- 보관공간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공간의 포화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전시에 사용되는 공용물품을 독립적으로 제작해 연간 전시에 활용되도록 한다.

- Regularly update the information about storage space so that the saturation of the space can be identified.
- Produce neutrally-styled materials so that they can be deployed for annual exhibits.

## 전시/교육 홍보 시설

- 1 전시 기간을 3개월 2주 이상 운영한다.
- 2 전시 기획 시 공간 연출에 사용되는 자재의 양을 최소화하여 설계한다.
- 3 전시 조성 시 이전 전시의 진열장, 가벽 등의 가구와 집기를 재사용하거나 보양재로 재활용한다.
- 4 해외 작가 작품의 경우 작가나 외부 큐레이터의 현장 방문 없이 가능한 한 원격으로 설치한다.
- 5 운송 및 이동에 드는 탄소 발자국을 최대한 절감한다.
- 6 시트지 사용을 축소한다.
- 7 각종 미술관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시 일회용품 사용을 절감한다.
- 8 전시 폐기물이나 폐자원을 분해, 분류하고 관련 단체/기관에 기증한다.
- 9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는 워크숍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10 공공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필(必)환경 미션을 실현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 11 리플릿 수거를 통해 재활용하고 리플릿 수량을 축소한다.
- 12 초대장, 포스터 등의 홍보 인쇄물을 줄이고, 웹으로 배포한다.
- 13 도록 등 출판물을 제작할 때 가능한 한 온라인(웹도록 등)으로 대체하고 인쇄 부수를 줄인다.
- 14 현수막 제작을 축소한다.
- 15 LED 조명을 사용한다.
- 16 전시 상영 장비의 에너지 소비율을 절감한다.
- 17 별도 가벽 설치 없이도 스크리닝이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벽을 보수한다.
- 18 공공 화장실 등에서 수자원 사용을 절약한다.
- 19 보관 중인 물품 목록을 작성하고, 각 물품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공유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 Exhibits / Education Promotion Facilities

- 1 The duration of exhibit should be at least 3 months and 2 weeks.
- 2 When planning an exhibit, design by minimizing the amount of materials to create displays.
- 3 When an exhibit site is organized, reuse furniture and supplies like showcases or temporary exhibition walls, or recycle them as supplementary materials.
- 4 In case of international exhibits, whenever possible, perform installation remotely instead of hosting overseas artists and external curators.
- 5 Minimize the carbon footprint for moving and transportation.
- 6 Reduce the use of adhesive sheet.
- 7 Reduce the use of disposable materials in operating several art center events or programs.
- 8 Disassemble and sort the wastes from exhibits and donate to relevant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 9 Deliver workshops and educational programs that raise environmental awareness.
- 10 Cooperate with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s to realize the eco-conscious mission and raise awareness in environment.

- 11 Collect used leaflets to recycle and reduce the number of prints.
- 12 Reduce the promotional printouts such as posters and invitation letters. Distribute them through the web.
- 13 When producing publication such as exhibition catalogs, replace them with online(web catalogs, etc.) and reduce the number of printed copies.
- 14 Reduce the production of banners.
- 15 Use LED lighting.
- 16 Reduce the energy usage rate for exhibit's presentation equipment.
- 17 Continuously maintain the wall to enable screening without installing separate temporary walls.
- 18 Save the use of water resources in public restrooms, etc.
- 19 Compile the list of materials currently in storage, and manage them efficiently by sharing whether each item can be recycled.

## 지속가능한 미술관 운영 매뉴얼

### 1단계: 필(必)환경 실천

#### 발행일

2023. 5. 31.

#### 발행인

정병국

#### 기획 및 편집

차승주

이다영

####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 디자인

DDBBMM

© 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에서 제작하였으며, 책과 이미지의 저작권은

아르코미술관과 작가 및 필자에게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3 (03087)

전화 02 760 4850

팩스 02 760 4780

[www.arko.or.kr/artcenter](http://www.arko.or.kr/artcenter)

## Manual for the Sustainable Museum

### Step 1: To be Eco-Conscious Museum

#### Publication Date

2023. 05. 31.

#### Publisher

Choung, Byoung-Gug

#### Editor

Seungjoo Cha

Dayoung Lee

#### Published by

Arts Council Korea

ARKO Art Center

#### Design

DDBBMM

© 2023 Arts Council Korea ARKO Art Center

The copyright of the book and images is retained by the author, owner of copyright and ARKO Art Center.

All rights reserved.

No Reproduction, copy or transmission of this publication may be made without permission of the publisher.

3 Dongsung-gil, Jongno-gu, Seoul,

03087, Republic of Korea

Tel +82-2-760-4850

Fax +82-2-760-4780

[www.arko.or.kr/artcenter](http://www.arko.or.kr/artcenter)